

역사가 숨쉬는 군산 '영화 도시' 꿈꾸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초원사진관 등 촬영 명소로 각광 장군의 아들·변호인 등 130여편...올해만 18편 촬영 시,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위해 체재비 지원 등 마련

군산이 영화의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48년 이만홍 감독의 영화 '끊어진 항로' 촬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0여편의 영화 배경지로 등장하면서, 올해만 벌써 18편의 영화가 군산의 풍경과 정취를 담아냈다.

수많은 근대문화의 유산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뿐 아니라 7080 세대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골목 등도 매력적이라는 게 군산시 분석이다.

군산시는 이같은 점을 적극 활용,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산의 영화촬영 명소 중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대표적 영화 촬영지로 꼽힌다. 장군의 아들, 타짜, 바람의 파이터, 가비 등이 모두 이곳을 배경으로 담아냈다.

일제 강점기, 포목점을 운영하던 거상 허로씨가 지은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근세 일본 무가(武家)의 고급주택 양식을 띠고 있는 목조 2층 주택. 지붕과 외벽 마감, 내부, 일본식 정원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의의가 크다.

경암동 철길마을도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주인공인 황정민과 한혜진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철길을 걸었던 장소로, 연인들이 많이 찾는 데이트 명소다.

마을 철길 한쪽에는 70년대에 건축한 낡은 2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철길을 따라 걸으면 만나게 되는 마을 벽에 담겨진 글과 그림들은 자연스럽게 사진촬영을 하게 만든다.

군산시 월명동에 위치한 초원사진관은 1998년에 제작된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원래 차고였던 장소를 하진호 감독이 주인의 허락을 받고 초원사진관이란 이름으로 개조해 촬영했고 촬영 이후 철거됐다가 군산에서 복원, 무료로 개방하며 지역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으로 군산

기네스북 인증 받은 빈해원은 변호인, 장남 1970에서 볼 수 있다.

화교출신인 2대째 운영하는 중국요리 전문점으로 1951년 문을 열어 올해로 66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다.

허름하게 느껴지는 건물 외관과 다르게 확 트인 내부와 높은 천장, 이국적인 인테리어의 고풍스러움은 마치 영화세트장을 방불케 한다.

세만금은 평양성, 마이웨이, 군도, 최종병기 활을 비롯, 영화 촬영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화 '군도(2014)'의 오프닝과 엔딩에서 경쾌한 음악과 함께 말을 타고 질주하는 모습은 마치 서양 웨스턴 무비를 보는 듯한 이국적 장면으로 유명하다.

영화의 명장면으로도 손꼽혔던 장면은 세만금 일대에서 촬영됐다.

이창동 감독의 '박 하사 탐 (1999년)'과 이정범 감독의 '아저씨(2010)', 유하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2004년)' 등도 군산을 담아냈다. 올해도 지난 9일 영화 '질투의 역사'가 군산에서 첫 촬영에 들어가는 등 18여편이 촬영을 진행중이다.

드라마들도 많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김과장(2017)'도 경암동 철길마을과 진포해양공원, 시간여행마을 등지에서 촬영되며 시청자들에게 군산에 대한 호기심을 안긴 바 있다.

군산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재)주영상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산 영화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또 현지에서 영화 촬영시 숙박비 등의 체재비를 지원하는 '영화 로케이션 지원제도'도 마련, 추진하는 한편, 내년에는 서천군과 '군산·서천 역사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왼쪽부터 초원사진관, 경암동 철길마을 전경, 신흥동 일본식 가옥.

사운드 영화 상영회 내일 남원에서 열린다

사운드 영화 아시나요?
남원시가 소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운드 영화 상영회를 연다.

상영회는 국내외 유명 사운드 아티스트들의 리서치와 워크숍이 펼쳐지는 '2017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지리산 소극장에서 열린다.

상영작으로는 2017 DMZ 국제 다류 영화제 출품작인 티지안 부지 감독의 '사운드 오브 워터'와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

지던시가 참가 중인 영국 사운드 아티스트 겸 감독 마크 라이켄의 '태풍 그리고 고속도로의 성자'가 상영될 예정이다.

마크 라이켄 감독이 직접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된다.

영화 상영회는 사전 신청(063-635-0014)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며 무료다.

남원문화도시사무국은 "소리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운드 프로그램을 기획, 시민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강천산 여성전용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비상벨·방범용 CCTV 설치
안전과 휴게공간 등 모두 갖춰

강천산 여성전용 화장실이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뽑혔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제 19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강천산 여성전용 화장실이 동상을 수상했다.

순창=장영민기자 jyg@kwangju.co.kr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군부대 등 총 102개 화장실이 응모, 강천산 화장실을 비롯해 24개소가 아름다운 화장실에 이름을 올렸다.

강천산 여성전용 화장실은 99.11㎡ 규모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화장실, 수유실, 탈의실, 장애인화장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과 외부 방범용 CCTV를 설치했고 관광객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마련해놓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17일 심정지 등 직원들의 위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열었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현대삼호중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7일 회사 안전체험관에서 현장 생산 및 지원부서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현장 직원들이 응급상황에 대응해 심폐소생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직 직원들은 대회에 앞서 지난 6~9일 별도의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익혔다.

대회는 지난달 31일 부서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18개 팀이 참가했으며, 심사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영암소방서와 중앙병원, 사내 심폐소생술 강사가 참여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경연대회는 각 부서 참가팀들이 블록 내 밀폐 공간, 선박 갑판 작업장, 결선 작업 중 갑판사고, 야간작업후 퇴근길 등 다양한 현장 상황을 가정해 5분 정도의 상황극을 구성하고 시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경연 결과, 의장1부가 대상을, 건조3부가 최우수상을, 도장1부와 도장2부가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소는 지역이 넓고 근무 인원이 많은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리엔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체결

6505㎡ 매입 제빵 공장 설립

디지털 카페 프랜차이즈인 '빌리엔젤'이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17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빌리엔젤은 이날 익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6505㎡를 매입해 제빵 공장을 짓기로 했다.

75억원을 투입해 이르면 내년 말까지

는 완공할 계획이다.

빌리엔젤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기로 한 18번째 기업이다.

빌리엔젤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만금, 군산항만과 가깝고 입주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해주는 등 조건이 좋아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정읍시 "아기 신분증 발급 받으세요"

수성동 출생 신생아 무료 발급

정읍시가 아기 신분증을 발급, 눈길을 끈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수성동주민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인구늘리기 대책의 하나로 관할 구역 내 출생아에게 아기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아기 신분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병원 진료와 놀이공원 입장 시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발급 대상은 1월 1일 이후 수성동에서 출생한 신생아로, 분기별로 부모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발급해준다. 신분증에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주소, 출생시간, 혈액형 등이 기록된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

- 완도 익산면 특암리 바다집 2481㎡ 팬션·별장적합 2억4천
- 순창군 인계면 감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암들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코너 대지 93㎡ 주택 94㎡ 가계 2칸과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 2동 2억2천
-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0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10년할 4억

투자·매도·교환

- 고흥군 동일면 바닷가 땅 9891㎡ 팬션 267㎡ 매도 10억
- 월산동 인안아파트 부근 2중주거지 758㎡ 다가구용 적합 7억
- 전북 진안군 산 470100㎡ 공사가 3억4천천선 신고 4억 매도 4억2천
- 담양 창평면 소재지 대지 등 10235㎡ 요양병원 등 최적 30억
- 함평읍 돌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6억2천
- 양계장 허가부지 장흥읍 15000여㎡ 축사허가도 있을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담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상가건물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사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인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6천(임대가능)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장성군 백암사역부근 땅 364㎡ 3층건물 객실 17 매도 2억6500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기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문의 010-3605-5000

송정리 부동산 매물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투자가치의 3개소
- 11억, 12억, 19억
- 각 코너 위치
-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대형부지 (만오천평)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닝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